

전남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속도’

관계전문가 전략회의 개최

초격차 산업 성장동력 육성

국내 유일 생태계 조성 박차

전남도가 레이저의 기초·응용 연구와 첨단 연관산업을 선도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13일 도청 정철실에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유치를 위한 관계전문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초격차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전남에 유치해 국내 유일의 레이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전남도의 의지가 반영됐다.

회의에는 이종민 광주과학기술원 명예연구위원, 고도경 한국광학회장, 남창희 기초과학연구원 초강력레이저과학 연구단장 등 국내 레이저 석학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의 효과적 유치전략 및 차별화 방향, 고부가가치 레이저산업 생태계 구축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종민 명예연구위원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



13일 오후 도청 정철실에서 열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유치를 위한 관계전문가 전략회의’에 참가한 이종민 광주과학기술원 명예연구위원, 고도경 한국광학회장, 남창희 기초과학연구원 초강력 레이저 과학 연구단장 등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시설에서 이뤄질 다양한 기초과학 및 극한과학 기술 개발, 국가전략산업의 기술적 한계 극복을 위한 첨단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미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와 신진식 기반 지역경제 고

도화를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 대표 김동균 ㈜그린광학 전무는 “세계 반도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방산 시장에서 레이저 광원의 수요가 늘고 있다”며 “앞

으로 레이저 광원 기술을 확보하는 회사만이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에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저는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대당 2,000

억원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의 핵심기술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단레이저 무기가 실전 투입되는 등 활용 범위와 경제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각계 인사 100명으로 구성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추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는 등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발 빠른 준비에 들어갔다. 2020년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참여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어 전남 유치 가능성이 높다는 평이다.

전남도는 나주가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2024년까지 연구시설 유치를 확정하고, 2033년까지 빛가람혁신도시 인근 50만㎡ 부지에 세계 최대 규모 초고출력·고에너지 기반 레이저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레이저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테스트베드, 산학연 분원, 전후방 강소기업 등을 유치·집적화해 국내 유일 ‘전주기 레이저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반도체·국방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핵심 원천기술을 선도하도록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반드시 전남에 유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러스터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날 논의된 전문가 의견을 도가 진행하는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유치전략 수립 기획연구’에 적극 반영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2023년 예정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차질 없이 대응할 방침이다. /오선우 기자



정기 브리핑

김승남, 나쁜 임대인 공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3일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않아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

실이 있고,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연도부터 과거 5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보전 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집주인에 대해서 인적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HUG에 신고된 전체 보증금 미반환 사고 가운데 87.4%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많이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이하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나쁜 임대인들의 행위를 국가가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되며,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을 개정해서 이들 명단을 공개하고 형사 처벌을 통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갑, 한국김산업연합회 감사패 받아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13일 한국김산업연합회(회장 박영남)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한국김산업연합회는 윤 의원이 지난 1월, 해남군 김 황백화 피해에 대한 발 빠른 대처 및 피

해복구비 확보, 진도군 김 가공업체 설비 지원사업 추진 등 김 양식어가 지원과 김 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이 사 감사패를 전달했다.

윤 의원은 “농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지난해 114개국에 약 3만톤, 7억 달러의 수출



기록을 달성하며, K-푸드 대표 먹거리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입법·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완성차·자동차부품 시험인증 지원

시, 검사비용 최대 80%

23일까지 희망기업 모집

광주시는 13일 “민선8기 핵심공약인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 및 ‘광주 자동차 산업발전’의 일환으로 관내 기업에 한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시험 인증 비용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국가 공인 자동차종합 인증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안전도 평가 및 국내외 공인인증 시험에 소요되는 검사비를 기업당 최대 80%까지 5,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 사업은 광주 경제주력인 자동차산업을

육성해 미래차 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선도사업이며, 연차적으로 지속 실시한다.

많은 기업의 참여와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15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친환경자동차·부품 인증센터’에서 현장설명회를 갖는다.

시험인증 비용 지원 대상은 광주시내 자동차 관련 분사, 공장, 연구소가 있거나 ‘제작자등 등록증’상의 주소지가 광주인 기업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전국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시험인증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시험인증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희망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친환경자동차·부품 인증센터’로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를 통해 8월 5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길용현 기자

중흥그룹

www.s-class.co.kr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